



◆ 일본 JBIC, 브라질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에 최고 3억 달러 보증제공

일본 국제협력은행은 브라질 최대의 정유공장인 Replan 정유소의 설비 현대화 사업에 최고 3억 달러의 보증을 제공키로 하였다. 동 사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社가 수행하게 되는데, 소요자금 조달은 간사은행인 Sumitomo Mitsui Bank를 비롯하여 후지은행, SG 동경지점 등 7개 민간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최고 3억 달러의 차관을 공여하고, 동 대출에 대해 JBIC이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.

동 사업은 시설 개선과 환경규제 등 강

화된 국제규범에 부응하기 위한 석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브라질 경제는 아르헨티나 등 인근 지역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일본계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가능케 한 것으로 평가된다. JBIC의 금융지원은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원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Petrobras社에 대한 자금지원, 일본 민간 금융기관들의 국제영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.

【黄秀泳】